

6) 방사선과 학생 임상실습 평가에 관한 연구

원광보건대학 방사선과, 서울보건대학 방사선과, 서해대학 방사선과
유병규*, 양한준, 박영순

목 적 : 이상적인 임상실습의 목적을 위해서는 실습현장인 병원과 대학간에 친밀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유지되어, 실습현장의 변화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분석, 수정보완을 통한 방사선교육의 완성에 도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의 운영방안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다단계 추출방법(multi-stage probability sampling method)으로 전국 10개 대학 방사선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된 250명을 설문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였다.

측정변수는 크게 임상실습의 형태 및 만족도와 문제점 및 평가로 나누었고, 임상실습의 형태는 조사대상 학생들의 기본적, 일반적 특성 그리고 임상실습의 만족도로 분류하여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임상실습의 문제점 및 평가를 임상실습장인 병원과 대학의 현실성을 고려한 입장에서 조사하였다.

결 과 : 성별은 남자가 73.6%, 연령은 24세 이상이 60.4%, 출신고는 80.4%가 인문계열, 학과선택 동기는 취업률이 높은 것이 23.6%로 가장 높았다. 학과 결정에 대한 만족감은 조사대상 학생들의 약 30%만이 만족하였고, 실습 병원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이 98.4%, 실습시기는 3학년 2학기중이 76.8%, 대부분 8주간 연속적인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다. 형태는 견학과 실습을 겸한 방식이 71.6%, “실습 전담 방사선사의 유무에 대한 응답과 실습계획에 의하여 실시되었는가?” 라는 설문에서 61.6%는 전담방사선사가 있었고, 실습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50 : 50의 비율로 나타났다. 실습의 미흡한 분야가 있다”가 75.6%, 실습내용의 만족도로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하였다”는 91.2%, 실습환경에 대한 “실습 분위기가 적합하였다”는 70.4%, “임상실습 장소와 학생 수는 적절하였다”는 53.2%, “장치나 시설 등은 충분하다”는 60%가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 응답으로 “방사선사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유익하였다”는 78%, “타 대학 실습학생들과는 정보 교환 및 동료로서 매우 좋았다”는 6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본 연구는 학생 임상실습 문제점 및 평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임상실습 형태 조사를 통한 전국 대학의 임상실습 문제점 및 평가를 간접적이지만,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상실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 투입되어 방사선사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정하에 산학협동체제가 제도화되어야만 하고, 대학과 병원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